

2021년 11월 ㄱㄷ제목

무더웠던 여름을 까맣게 잊어버릴 만큼 선선하고, 습기가 느껴지지 않는 기분좋은 쌀쌀함이 있는 아다나의 가을, 한 해도 거의 저물어가면서 감사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다나 프나르 ㄱ회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이곳 성도들에게 기저 질환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ㄱ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일 예배와 수요 ㄱ도회, 금요일에 공원 전도까지 할 수 있게 하신 ㄱ님께 감사드립니다.

닥친 어려움들 때문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이란 난민 가정과 술탄과 베히에, 그럼에도 믿음으로 환하게 ㄱ님을 찾는 발걸음들 계속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인 선생님 부부와 어린 자녀들이 함께 하면서 3살백이 도나가 탬버린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예배 시간이 더욱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피어나고 있는 믿음과 소망과 주님사랑

베히에가 반에서 오자마자 큰 병치레를 하고 있습니다. 반에 보내면서 남편은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생활비는 커녕 돌아오는 차비조차도 보내주지 않고 이곳 집에서 음란한 삶을 살고 있었음을 알게되어 너무나 큰 분노와 아픔을 겪으면서 그것들이 몸의 질병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폐와 기관지 염증으로 여름에 숨쉬는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무릎부터 다리까지 부어올라서 걸음을 못걸고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갔는데, 모든 혈관에 염증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관절 부위에 석회화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통증이 심하게 온 것입니다. 몇주째 잘 걷지 못하고 거의 누워서 지냅니다. 의사가 스트레스 때문에 심해졌다고 아무것도 생각지 말라고 했습니다.

술탄의 턱이 밤중에 빠져서 한밤중에 병원에 갔는데 심한 경제적 스트레스로 입을 악물다 보니 턱관절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어깨 통증도 심하여 병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란인 자매 말라핌은 원래 많은 질병과 우울증으로 비만이 심해져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신장염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당뇨가 400이 넘고 지방간이 심하게 보였다고 합니다. 이 충격으로 일주일을 울면서 지냈는데 의사의 말이 스트레스성이라 했다 합니다.

수다베도 다친 팔이 낫지 않는 이유가 심한 골다공증을 앓고있어서이고 그래서 손과 발이 뒤틀리고 눈의 통증도 심합니다.

이 자매들이 겪고 있는 삶의 아픔과 고통과 짙어진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병의 주된

원인은 공통적으로 스트레스!!! 그런데도 감사한 것은 이들이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살아계신 ㅈ님, 기적의 ㅈ님을 바라보며 입으로 늘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ㅈ님에 대한 소망을 절대로 잃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즐겨부르는 찬양이 ‘cornerstone’입니다. “무섭게 바람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렘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닷을 주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자 강건케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아!!! 자라지 않는다고 여겨왔던 이들의 믿음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ㅈ님께서 자라게 하셨구나. 이 고난으로 인해 ㅈ님께 대한 소망이 더 깊어졌구나. 이들이 어느 환경에도, 어떤 시련을 만나도 ㅈ님을 배반하지 않을거라는 확신이 생겨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일마다 기쁨으로 춤추며 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에 도전받고 있으며 ㅈ님의 능력을 맛보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게 됩니다. ㅈ님, 이들을 양육할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목자들을 보내주십시오!

## 1. 아다나 프나르 ㅈ회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교제하기 위해 저희 도시에서 약 40분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난 30일(토)에 함께 여행하고 왔습니다.

바울의 생가 우물을 보았고, 바울의 기념 ㅈ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렸고, 다른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으로 도전받는 하루 여행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잔, 말라함과 딸인 니카, 그리고 수다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오랫동안의 다른 도시 나들이여서 펍이나 설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모든 성도가 함께할 수 없었지만 사랑 안에서 즐거웠던 이 짧은 믿음의 순례가 이들의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기를... (사진 첨부)

## 2. 성도들의 개인 ㅈ제목

- 수다베: 매일 저녁 줌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아와 부르짖으며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질병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기를...
- 베히에: 주일에 ㅈ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낮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 ㅈ도를 응답해주시기를... 기적을 베풀어주시기를...
- 술탄: 아들인 해발이 엄마의 고통을 보며 정신이 들기를... 전화기가 고장이 난 후 혼자서 ㅈ도하고 있는데 가장 어두운 깊은 골짜기에서 ㅈ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도록...
- 잔, 말라함 부부: 우리들의 ㅈ도를 통한 ㅎ나님의 은혜로 잔은 밀린 월급을 받아 한달 아파트 렌트비도 지불하고, 허리도 좀 나아져서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말라함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우울증에 들어갔으나 의사의 처방대로 다이어트하며 살도 빼고 ㅈ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ㅈ님의 능력을 맛보는 자매되도록...
- 갈립, 씨난과 굴텐 가정의 아들과 딸들: ㅈ님을 만나고자 ㅈ배에 올 수 있도록... 훌리야 가족이 다시 ㅈ배를 그리워하며 ㅈ회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 산돌, 조이 선생님 가정: 어린 자녀들이 건강하게 되며, ㅈ회를 섬길 때 이 ㅈ회에 대한

자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기를...

### 3. 이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이곳의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보다 물가의 폭등입니다.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 서민들의 삶이 힘듭니다. 백신 접종율이 올라가면서 코로나 상황도 안정되고, 관광 산업을 비롯한 경제 전반이 활성화되어 물가가 안정되기를...

### 4. 전도

매주 금요일에 11시 반부터 1시까지 마스크를 쓰고 시내 공원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수다베, 술탄 그리고 한인 선생님 부부가 함께 하면서 이전보다 더 담대해진 전도자들의 모습이 보여 감사합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히도록...

### 5. 아다나 하나님의 집

한인 여성 사역자들, 술탄과 수다베가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아와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의 불이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 6. 저희 부부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 저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건강하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딸(수잔)과 아들(스티븐)의 가정이 그들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도록...

김샘물, 하나 드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1,2)*